

중합적인! 업무 파악이 환경관리에 큰 힘

작살처럼 풋치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아직은 무서운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청향을 품 같은 촛대제과(주)의 정진규 환경팀장을 만났다.

환경관리에서는 잘, 평상시에는 신심 많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를 만나 회사 속의 나, 나 속의 회사 환경관리 현황과 철학 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성호 본연합회회장에게 환경관리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정진규(유팀장)〉

◆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롯데제과(주)의 환경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롯데제과(주)는 제과 업계의 선두업체로 영등포, 양산, 평택, 대전, 시흥공장 등 5개 공장에서 껌, 아이스크림, 비스켓, 스낵, 초코렛트 등의 제품을 각 공장 특성에 맞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장은 지난 83년에 서울에서 이전하여 비스켓, 사탕, 스낵, 초코렛트 등의 제품을 월 100억 원 가량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낮익은 제품으로는 꼬갈콘, 카스타드, 칙촉,

생캔디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식품공장이기 때문에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및 설비를 갖추고 고객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게 품질관리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국내 소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해외 유명제품과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장은 수질 3종, 대기 4종 사업장으로 수질의 경우 BOD, COD, SS 10 ± 5 ppm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대기의 경우 98년도 보일러 연료를 벙커C 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 개선하여 대기 2종에서 대기 4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회사의 환경관리 계획이 있다면?

◆ 먼저 환경관리의 기본인 오염원 발생 및 용수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질의 경우 3년전에 비해 용수 사용량 및 처리량을 5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지속적으로 생산 및 관련부서와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해 10% 이상 더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둘째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향후 진행될 ISO 14000 인증과 정보 및 계측제어를 추가시킨 TMS 설치를 면밀히 검토, 시행할 계획입니다.

▣ 환경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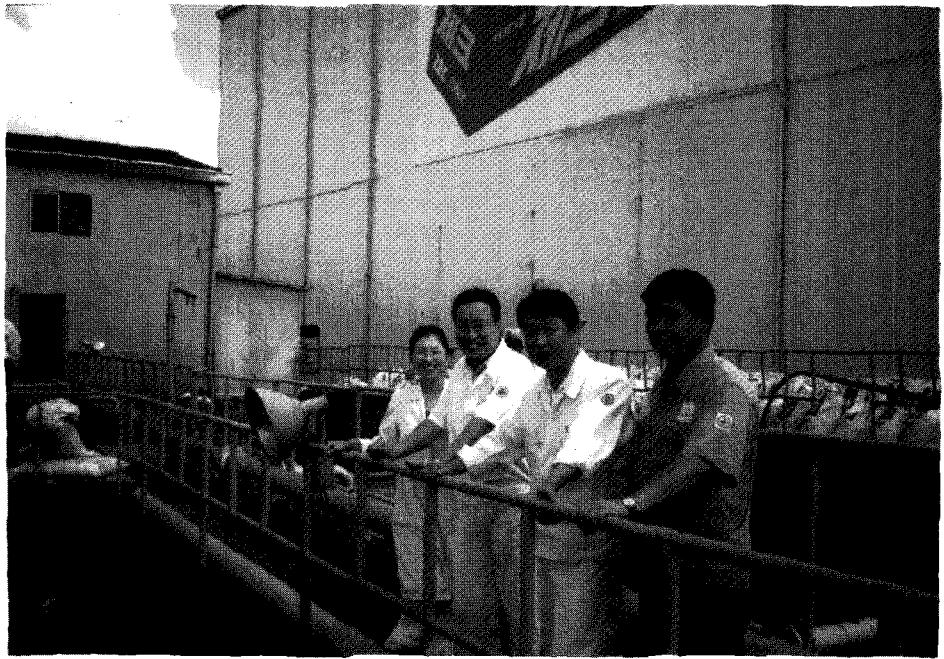
☞ 자칭 물과의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 '환경관리'라는 용어가 생소할 때 전 직장에서 초순수를 처리하는 정수처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후 공무설비부서(기관, 공조, 고압가스), 품질관리 업무 등을 거쳐 다시 환경 업무 시작해 10년째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직업의 선택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이지요.

▣ 환경관리인으로서의 남다른 철학이 있다면?

☞ 환경관리 업무는 상식과 순리 그리고 점검을 기본으로 하는 종합 엔지니어링(기계, 건축, 토목, 화학,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열매)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그 뒤처리를 외면하게 된다면 환경은 어김없이 파괴되고 맙니다. 물자를 무작정 낭비하고 자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계획 없이 변환시킬 때 환경의 오염정도는 심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위해 여러분이를 공부하고, 친환경적인 행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나를 생각하면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 환경관리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환경팀 직원들과 함께 ... 우측 두번째 정진규 팀장〉

☞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잘 알려진 폐수처리 공법인 활성오니법 대신 신공법인 바실러스(Bacillus SP) 공법 도입단계에서 선택, 결정, 도입 후 시운전, 정상화까지의 경험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정화되어 경비절감 및 운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란 시행과정 중 많은 고민도 있지만 얻는 것 또한 많다는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입니다. 정보부족으로 인한 애로점을 위해 회원들간의 정보교류가 좀더 원활했으면 합니다.

▣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관리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점은?

☞ 본의 아니게 직장의 여러 부서를 끊긴 경험이 환경관리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아니 찾아서라도 주변업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급변하는 디자인 시대에 보다 경쟁력 있는 환경관리인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